

코스피	코스닥
7475.94	837.43
(+184.03)	(+43.43)
금리 (국고채 3년)	환율 (원·달러)
3.768	1499.20
(-0.010)	(-2.20) (3일)



AI發 자산시장 혁신 투자 공식 달라졌다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

자본시장 최고경영자 등 참여
미래 자산관리 'AI 활용' 강조
주식·부동산시장 우상향 전망

자주 쓰는 인공지능(AI)에 “AI시대에 자산시장은 어떻게 달라질 것 같나?”고 물었다. AI는 “얼마를 투자할까”보다 “AI를 어떻게 활용할까”가 중요한 시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AI는 스스로 AI가 맞춤형 포트폴리오 제안, 세금 최적화, 자산 리밸런싱, 위험관리, 은퇴설계 등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AI가 단순히 새로운 산업을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자산시장의 구조를 바꾸는 플랫폼 기술에 가깝다는 얘기도. <관련기사 L7·L8>

금융당국과 자본시장 최고경영자(CEO), 시장 전문가들도 지난 9일 메트로경제가 연 ‘2026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에서 한목소리로 “앞으로는 AI를 직접 개발하는 기업뿐 아니라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생산성과 수익성을 높이는 기업이 더 높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동시에 투자자 역시 AI를 분석 도구와 의사결정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는 능력이 장기적인 투자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경쟁력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황선오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축사를 통해 “좋은 자산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운용하느냐가 이제는 노후 준비의 핵심 과제가 됐다”며 “AI는 자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AI 활용이 확대될수록 투자자 보호 장치도 함께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부원장은 “AI 알고리즘은 스스로 학습하며 최적의 대안을 찾지만 모델이 고도화될수록 그 판단 과정

을 사람이 온전히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자산관리 과정이 ‘블랙박스’가 되는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AI가 유사한 데이터를 학습하고 비슷한 투자 판단을 내릴 경우 특정 자산으로 시장이 쏠리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며 “이는 투자자 보호를 넘어 시장 시스템의 안정성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자산관리 분야에서는 ‘에이전틱 AI’가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전망도 나왔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앞으로는 AI가 매일 뉴스를 분석하고 투자 전략을 제안하는 것은 물론 투자 목표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주문 직전까지 준비하는 수준으로 발전할 것”이라며 “투자자는 최종 승인과 판단을 담당하고 AI가 실행을 지원하는 형태가 일반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회사 중심의 자산관리와 AI를 활용한 자기주도(DIY) 자산관리가 함께 성장하는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AI는 자본시장의 가격발견 기능도 높일 것으로 평가했다. 송 선임연구위원은 “공시와 뉴스, 경제지표뿐 아니라 이미지와 음성 등 다양한 비정형 정보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게 되면서 정보 처리 속도와 분석 능력이 크게 향상되고 있다”며 “실제로 챗GPT 활용 이후 호가스프레드가 축소되고 가격발견 속도가 빨라졌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됐다”고 소개했다. AI 확산이 거래 비용을 낮추고 시장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AI가 사람을 완전히 대체하는 시대는 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2면에 계속>

/허정윤·신하은 기자·김아영 수습기자

zelkova@metroseoul.co.kr



metro



고유가·고환율 지속… 농수산물 가격 급등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환율 여파로 비료값과 어선 유류비가 오르며 수입산 고등어 1손(2마리) 평균 가격이 1만970원으로 평년 대비 22.3% 상승하고, 감자가 10.5% 상승하는 등 농수산물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12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판매중인 고등어.

/뉴시스

원·달러 환율 진정세… 1400원대 안착 기대

SK하닉, 美 상장… 대규모 달러조달
한은 금리전망도 원화값 상승 지지

이달 초 달러당 1555.8원까지 상승했던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안착을 시도하고 있다.

12일 한은에 따르면 지난 10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501.9원에 주간거래(오후 3시 30분 종가)를 마쳤다. 전일 종가와 비교해 4.7원 내린 수준이며, 지난 2일 기록했던 1555.8원과 비교해선 53.9원(3.46%) 하락(원화가치 상승)했다. <관련기사 3면>

원·달러 환율은 지난 5월 15일 달러당 1500원대에 진입한 이후 36거래일 연속으로 1500원을 넘었다. 외환위기 당시였던 1998년 3월 이후 최장기록이다. 지난 8일에는 환율이 1498.5원까지 내려 달러당 1500원대 기록은 깨졌지만, 올해 주간 증가 평균은 1487.1원에 육박한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5년의 환율 평균은 1305.1원으로, 올해 원화값은 달러와 비교해 ‘초약세’를 지속하고 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의 상승세가 주춤

것은 SK하이닉스의 나스닥 상장으로 원화값 하락의 주 요인이 됐던 달러의 수급 불균형이 다소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SK하이닉스는 지난 10일 미국주식에 타증서(ADR) 발행을 통한 미국 나스닥 시장 상장을 통해 약 265억달러를 조달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체결됐던 한·미 통화스와프(약정환율에 따른 통화 교환)로 공급됐던 달러는 198억7200만달러다. 양국 간의 통화스와프보다 큰 규모의 265억달러에 달하는 자금이 외환시장에 공급될 것이라는 전망은 원화값을 빠르게 끌어 올렸다.

지난 주 코스피의 가파른 하락 이후 잦아든 외국인의 국내 증시 매도세도 원화값에 긍정적이었다.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 8~9일 양일간 유가증권시장에서 약 1조1000억원을 순매수했다.

◆ 한은 ‘금리 인상’ 관건

오는 16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둔 한은의 금리 전망도 원화값 상승을 지지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한은이 기준금리

를 25bp(1bp=0.01%p) 인상한 2.75%로 높일 것이라 관측이 우세하다. 만장일치 결정 가능성도 크게 점쳐진다.

다만 신현송 한은 총재가 지난 5월부터 금리 인상을 예고했던 만큼, 시장의 이목은 향후 금리 방향으로 쏠리고 있다. 금통위원 가운데 0.5%p 인하를 주장하는 소수 의견이 등장하는 등 긴축 경로가 제시된다면 환율이 추가 하락(원화값 상승)할 수 있어서다. 현재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차는 1.25%p 수준으로, 기준금리 격차가 줄어들면 통상 환율은 하락한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환율이 완만하게 하락해 안정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유미 키움증권 이코노미스트는 “한미 기준금리차가 축소된다면 원화에는 우호적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국내 증시 변동성이 완화되고 외국인의 매도세도 진정되는 동시에 국내 기업의 원화 환전 수요가 확대된다면,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 중후반으로 하향 안정화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metro

이란,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美 공습 재개

걸프지역 군사충돌 우려 확산

페르시아만 일대에 전운이 다시 감돌고 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선박 여러 척이 지정된 항로를 벗어났다는 이유를 들어, 호르무즈 해협을 재차 틀어막았다. 미국 측은 이와 관련해 대 이란 공습 재개로 응수했다. 그 직후 이란은 걸프 국내 미군기지 등을 상대로 보복 공격에 나섰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12일(현지

시간) “여러 선박이 승인되지 않은 항로로 해협 통과를 시도했다”고 했다. 이어 “향후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어떤 선박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없다”고 공표했다. 항로변경 지시를 무시한 선박 1척에 대해서는 경고 사격을 가했다고 했다.

미군은 상선 피격 및 이란의 해협 재봉쇄 직후 대 이란 공습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이는 또 양국 간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3번째 이란 공습으

로 기록됐다. 미군 중부사령부에 따르면 키프로스 국적의 상선 한 척이 이란의 공격을 받아 선원 1명이 실종됐다.

미군은 미 동부시간으로 11일 오후 7시경 공습을 개시했다. 케슈섬 등 이란 남부 곳곳에서 폭발음·화염 등이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도 주변국 공격을 다시 감행하며 맞불을 놓았다. 이란 국영 프레스TV는 “중동 내 미군 목표물을 겨냥한 일련의 공격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방송은 또 요르단 등지에서 방공망 가동이 포착됐다고 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metro



“2026 백세플러스포럼 시즌2”가 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은퇴준비를 비롯해, 연금자산 관리, 부동산시장 전망, 디지털자산 투자 전략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최규준 기자 ch9720@

메트로 한줄뉴스

- ▲ 15일부터 **李 부처** 업무보고…“생중계 익숙”·“송곳질문 긴장”
- ▲ 해군 “동해 경비임무 함정서 승조원 1명 실종…수색작전 진행”



- ▲ 김용범, 잠재성장률 3% 언급하며 “**韓 경제** 장기 추세 달라질 가능성” /사진 뉴시스
- ▲ 오세훈, **李 대통령** 부동산토론회에 “세금 부담 논의 집중 우려”

- ▲ 정청래, 김민석 겨냥 “최악의 자기정치는 선거 때 탈당해 남의 당 돕는 구태”
- ▲ 개혁신당, 경찰 부실 수사 여론조사 “추가 수사는 ‘검사’ 65.5%·‘경찰’ 26.5%”